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평산신씨대종중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춘 천 묘 소 033-243-2076
표 총 재 053-985-1330
용 산 단 061-363-1495
덕 양 서 원 010-8762-7799



발 행 인 신 철 수
편 집 인 신 금 철
인 쇄 인 송 영 철



제213차 상임이사회 개최

『시조 장절공님과 선조님들에 대한 불경(不敬)행위의 징계처분 건』 의결

2022년 7월 13일 평산신씨대종중 제213차 상임이사회가 대종중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시조 장절공님과 선조님들에 대한 불경행위의 징계처분 건』을 상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찬성 21명(의장 제외),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하였다.

이 징계(懲戒)의 문제는, 지난 4월 16일 전남 곡성군 태안사입구 주차장에서 “장군단성역화 기념비 제막식”이 장군단성역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거행된 바, 『시조님의 두상(頭上)을 모신 장군단』, 『장군단은 시조님의 묘소(墓所)』 등의 기록이 비석에 비문으로 각인(刻印)되고 전국에 배포한 책자에 활자화(活字化)된 것이다.

제막식의 준비와 기념비 비문의 작성 및 제작, 책자의 원고수집과 편집 그리고 책자의 간행은 물론, 제막식 외빈초청의 섭외, 제막식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한 신인현(申仁鉉) 장군단성역화추진위원회 위원은, 4월 6일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개국 일등공신 장절공 신승겸(申崇謙)장군의 두상이 모셔진 장군단 성역화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라는 제막식 안내 문자를 카톡으로 전송하였다.

제막식에 초빙된 외부 인사들은 “두상을 모신 장군단”이라는 축사를 했고, 신인현(申仁鉉)위원이 찬(撰)한 기념비문에는 “장절공의 두상(頭上)을 모신”이라는 기록이 3회, 3단석축의 “묘소(墓所)”라는 기록이 3회 새겨져 있고 “이번 성역화사업으로 묘소를 새롭게 봉축하는 과정에서도 석함이 확인되었음을 밝혀둔다”고 비석에 각인(刻印)하였다.

평산신씨대종중에서는 1982년, 83년에 걸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어 명확하게 “두상을 모신 장군단은 허망지설(虛妄之說)”이라고 결론 내리고 1983년 대종중 상임중앙유사회의와 정기총회에서 추인하였으며, 고증학적으로 검증된 합리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에만 재론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때는 전남 곡성군에서 군향토지(郡鄕土誌)에 시조님 관련내용을 실겠다 하여, 대종중은 대균(大均)덕양

서원장과 함께 원고를 작성한 후, 대균(大均) 씨에게 곡성군에 전달토록 하였으나, 대균(大均) 씨는 이 원고에 “장군단에 시조님의 머리를 묻고 申將軍 무덤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임의로 가필(加筆)해 전달함으로써, 가필된 원고의 곡성군 향토지가 1982년 9월 간행되어 버렸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대종중은 곡성군에 정정을 문서로 요청하여 회신을 받고, 1983년 상벌심사위원회, 상임중앙유사회의, 정기총회에서 대균(大均)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했으나 와병중으로 보류하던 중 1984년 초 당사자가 사망하였다.

이후, 대종중은 1980년대 후반에 “장군단 사실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종중·용산단·덕양서원은 물론 태안사(泰安寺)의 고문서와 국내의 시조님 관련 문적을 총망라하여 치밀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1991년 결과보고서에 “두상(頭上)” 운운함은 1929년경에 태안사의 한 승려가 허위 날조한 허망지설임을 재차 천명(闡明)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학(漢學)과 보학(譜學)에 조예가 깊고 넓은 학식(學識)을 갖추어 당대의 평산신씨를 대표하는 전문가, 상철(祥澈)전문위원은 “용충설의 허위 날조에 대한 논증”을, 효순(孝淳) 제14대 대종중도유사는 “주암만집”을 통해 학자의 관점에서 학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두상을 모신 장군단”에 대해 논술을 발표하는 등 대종중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장군단의 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은 바 있으며, 이 결론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효하다.

제213차 상임이사회는 당초 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의장의 회의준비를 하고 있는 오전 10시경에 20명의 시위인력이 머리띠와 피켓을 갖추고 회의장에 몰려와 시위를 하는 통에 대관(貸館)을 취소당하여, 장대 빗속에 급히 장소를 옮겨 대종중 회의실에서 11시 20분에 개최되고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과 과거의 유사사례 검토, 문제점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되었다.

철수(澈秀) 대종중 회장은 “미리 우송해드린 회의자료를 검토하시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되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군단성역화 사업 자체는 많은 분들의 협조로 잘 마무리 되었으나, 성역화사업의 기념비에 시조님과 관련해 허위날조된 전설(傳說)이 사실(事實)로 둔갑되어 새겨지고, 이미 40여년 전에 당시



["자칭" 장군단 수호대책 위원회 시위장면]

덕양서원장이던 신대균씨가 유사한 문제를 일으켜 대중중에서는 10여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순수한 단소(壇所)라고 결론지었던 일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군단에 시조님의 두상이 문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조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후손들은 1,000여년이 지나도록 시조님을 머리 따로 몸 따로 각각 다른 장소에 모셔놓고 있다는 것으로 평산신씨의 패륜 행위를 대내외에 광고하는 꼴이 되어 선조에 대한 불경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평산신씨 전체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닐 수 없는 바, 우리가 문의 장래를 위하여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논의가 이뤄진 문제점으로는, 신체의 일부나 부장품을 한 조각이라도 모시면 단(壇)이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장군단(壇)에 두상이 모셔져 있다거나 묘소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평산신씨 전체가 무식한 일족(一族)이 되는 것이다.

시조님의 신체를 서로 다른 2곳에 모셔놓고 있노라고 대내외에 광고를 한 것은 후손들이 1,000년 넘도록 방치해 왔다는 것으로, 이는 시조님은 물론 선조님들에게 욕급선조(辱及先祖)의 불경(不敬)에 다름 아니며 살아있는 전체 평산신씨를 모독(冒瀆)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장군단성역화 기념비 제막식은 선조님들을 욕되게 하고 대중중과 평산신씨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차대한 잘못이다 등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거친 후, 의결내용의 의안이 상정되었다. 의결내용은 「평산신씨대중중(이하 대중중) 규약 제26조(징계)에 의거하여 장군단성역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 및 사무국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5개항을 처분한다.

① 위원 신상남, 신인현, 신동언과 사무국장 신동복은 협력하여 장군단성역화 기념비 비문 및 간행물의 “두상”, “묘소” 기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물증과 함께 대중중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 신상남에 대해, 대중중 상임이사회에서 징계처분이 의결된 시점(이하 처분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의 ①항이 완결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까지, 대

중중의 각종회의 출석과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제한한다.

③ 위원 신인현에 대해, 추진위 재무담당으로서 대중중에서 장군단성역화사업에 지원한 5,000만원을 대중중에 반환하여야 하고, 처분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원금의 반환과 위의 ①항이 모두 완결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중중의 각종회의 출석과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제한한다.

④ 위원 신동언, 사무국장 신동복에 대해, 처분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의 ① 항이 완결되는 날까지, 대중중의 각종회의 출석과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제한한다.

⑤ 위원 신상섭에 대해서는 불문한다.」이다.

상정된 의결내용의 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21명(의장 제외)에 반대 2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어 의장인 철수(澈秀) 대중중회장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13시에 폐회되었다.

이날 상임이사회의에는 갑식(甲湜)명예회장, 길순(吉淳)명예회장께서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을 지켜보며 고견을 피력해 주셨다.

대중중 7층의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20명의 시위대는 건물밖에서 쏟아지는 빗속에도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과 우산을 든 채 시위를 하며, 대중중 출입구의 셔터를 두드리는 등 거친 행동을 하여, 주변 호텔과 사무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아침 일찍 대형버스를 대절하여 서울청소년수련관에 도착해 대중중 상임이사회를 방해한 후, 회의장소가 변경되자 약 600m 거리의 대중중 건물로 뒤쫓아와 일반 시민들이 오고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평산신씨의 치욕(恥辱)스런 모습을 연출하여, 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파출소장이 출동하고 대중중 건물내 입주자들이 공포감을 호소하는 등 평산신씨대중중 역사에 길이 길이 오점(汚點)을 남기는 결과가 되었다.

대중중 규약 및 종규 제·개정

2022년 5월 16일자로 평산신씨대중중 규약과 제 규정의 제정·개정이 확정되었다.

편집·종규위원회(위원장 彪均)에서 2020년부터 검토한 규약과 제 규정의 제정·개정(안)이 2022년도 평산신씨대중중 정기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212차 상임유사회의(2022. 3. 29)에 부의되어, 조건부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건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여 상임유사회 구성원의 서면결의를 받은 결과, 총원 34명의 73.5%인 25명이 서면결의에 참여하고, 참여자의 84%인 21명이 찬성함으로써, 대중중 규약 제20조에 의거하여 의결되었다.

규약의 개정내용 중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명칭의 변경으로, 도유사는 “회장”, 명예도유사는 “명예회장”, 부도유사는 “부회장”, 감사유사는 “감사”, 상임유사는 “상임이사”, 대의유사는 “대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중중회장을 상임유사중에서 선발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던 부분을 개정하여, 총회에서 총회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중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신규 제정하여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대면(對面)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거운동의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회장, 고문 합동간담회 개최



2022년 6월 29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중중 회의실에서 철수(澈秀) 회장, 갑식(甲湜)·길순(吉淳) 명예회장, 현채(鉉採)·현덕(鉉德)·선철(璇澈)·광순(光淳)·동진(東振)·동은(東銀) 고문, 이상 9분이 참석하여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철수(澈秀) 회장은 장군단의 기념비 건립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명예회장님들과 고문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대중중에서는 2015년경, 태안사 스님들이 우리 시조님을 숭앙하여 제사를 모시던 장군단(將軍壇)이 있는데, 진입로(進入路)와 단소(壇所)가 황폐해져 보수(補修)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대중중 임원들이 장군단 진입로와 단소의 보수에 대해 대중중에 협의차 왔을 때, “머리무덤”의 “머”자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전제(前提)로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하여, 2019년 장군단성역화 추진위원회에 5,000만원 지원을 상임유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지원을 하였으나, 머리무덤 운운함은 어디까지나 전설(傳說)이나 구전(口傳)이 전제되는 사안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두상을 모신 장군단”, “장군단이 묘소”라고 하는 것은 시조님의 신체를 서로 다른 2곳에 모셔놓고 1,000년 넘게 지내왔다는 것으로, 시조님과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고, 평산신씨 전체 종원들을 모독하는 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장절공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자(者)들이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중중 규약에 의거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 기념비는 철거해야 마땅하고 배포된 책자는 전량 수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대중중에서의 지원금도 마땅히 환수되어야 함은 물

론, 이런 조치들은 대중중에서 해야만 하고 반드시 법적조치가 선행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 등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한, 태안사 한 승려의 놀음에 휘둘러 정신을 못 차리는 못난 평산신씨들이 있다는 게 서글프다, 장군단을 용산단중중에 편입시켜 표충재중중에서 모영재를 관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예회장님 두 분이 7월 13일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시어 명예회장, 고문들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로 하고 간담회를 종료하였다.

정·부회장 및 감사 연석회의 개최



2022년 6월 8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부회장 및 감사 연석회의에는 철수(澈秀) 회장과 문철(文澈)·현대(鉉大)·동석(東錫)·현덕(鉉德)·용철(龍澈)·형식(亨湜) 부회장, 그리고 권채(權彩)·민철(民澈) 감사가 참석하였다.

철수(澈秀) 회장은 대중중 규약 및 규정의 제, 개정이 완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장군단성역화사업의 기념비 제막식에서 “시조님의 두상(頭上)이 모셔진 장군단”이니 “장군단이 시조님의 묘소(墓所)”니 하는 기록들이 기념비의 비문에 새겨져 있고 행사책자에 활자화되어 전국에 배포되었음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 부회장님과 감사님들을 모시고 의논을 드리고자 한다고 회의소집의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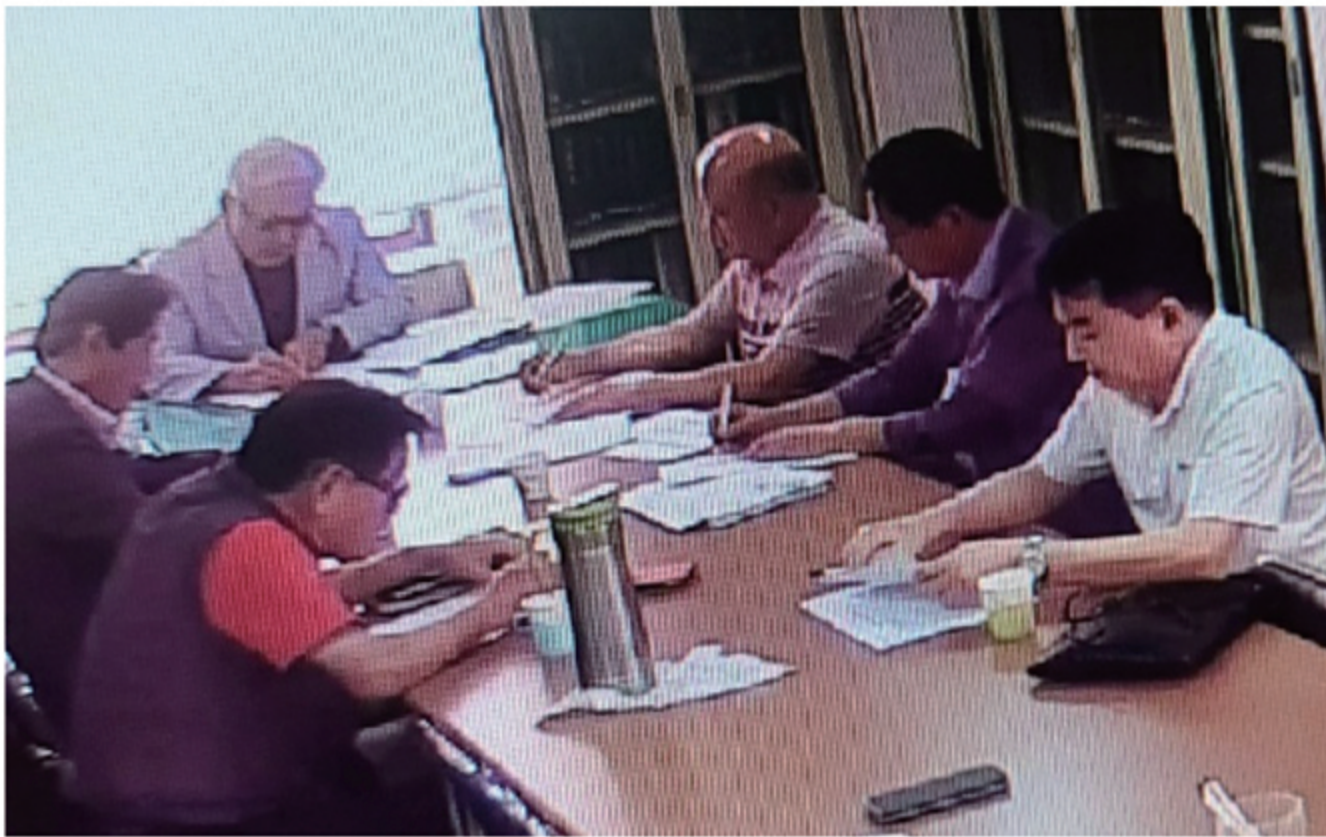
이어서 총무국장의 회의자료 설명이 있는 후, 권채(權彩) 감사는 우리 대중중 규약과 중규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정비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철수(澈秀) 회장은 “용충설의 요약”, “용충설의 허위날조에 대한 논증”, “주암만집”, “태안사 전설에 관하여”, “장군단 사실관계” 등 자료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피력하였다.

토론에서 “장군단 기념비와 책자의 기술내용은 평산신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조상님들을 욕되게 한 일이므로, 비석은 철거해야 하며 관련자들은 제명처분을 해야 한다. 시조님 또는 평산신씨와 관련한 사항은 대중중의 허락을 받아 대중중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번 장군단의 일은 대중중에 일체의 보고나 상의도 없이 진행되고, 근거도 없는 낭

설을 마치 역사인 양 대내외에 광고하는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대중중에서 종규에 의거해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처분을 하여야만 대중중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등의 의견교환을 거쳤다.

종합적으로, 장학·상벌위원회에서 소명발표를 하게 하고 심의를 하여 상임이사회 부의안건을 정한 후, 상임이사회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여부와 징계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뒤 회의를 종료하였다.

장학·상벌위원회 개최



2022년 7월 6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대중중 회의실에서 장학·상벌위원회가 동석(東錫)위원장, 재식(載湜)부위원장과 현진(鉉鎭)·성철(成澈)·동건(東建)·광섭(光燮)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철수(澈秀) 대중중회장은 “대중중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전남 곡성에 있는 장군단에 시조님 두상이 모셔져 있다』는 사안으로, 이는 1980년대에 논란이 되어 대중중에서는 『평산신씨대중중 장군단 사실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문적 및 논술을 총망라하여 치밀한 연구와 조사, 분석을 통해 『1929년경에 태안사의 한 승려가 허위날조한 허망지설(虛妄之說)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1983년 대중중 상임중앙유사회회의와 정기총회에서 추인하였으며, 고증학적으로 검증된 합리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에 한해 재론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장군단성역화 기념비 제막식에서는 이들을 모두 부정하는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 벌어졌던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당부한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동석(東錫)위원장은 “대중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소명자들의 소명발표를 신중하게 듣고 진지한 심의를 통해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상정안건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총무국장의 회의자료 설명이 있는 후, 소명자가 1명씩 입장하여 소명발표를 하고 퇴장하였다.

상남(相南) 장군단성역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들은 “아주 중요한 직업에 바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데 대중중에서 호출하여 나왔다, 장군단성역화사업이 대중중 산하기관인가?, 광주·전남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대중중에 투서를 해서 대중중이 징계에 나섰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로들의 명단을 제시해 달라” 등의 소명을 하였다.

인현(仁鉉) 위원은 “1980년대에 두상을 모신 장군단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정리를 했어야 한다, 현모(鉉模)씨가 쓴 영적비문은 물론 중수기, 평산신씨 천년사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책자에 묘소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상이 모셔져 있으니 묘소 아닌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과거 기록들도 같이 문제를 삼아야 한다, 자발적이고 임의단체인 추진위가 대중중 어디에 속하는가?, 대중중 산하기구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징계운을 하는가?, 광주·전남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대중중에 투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로들의 명단을 제시해 달라” 등의 소명을 하고, 대중중에서 청구한 현재 시점의 결산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요청하지 않은 2019. 4. 20 총회자료와 결산서 등을 놓고 퇴장하였다.

동복(東福) 사무국장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했으며, 소명서에 기술한 대로 기념비나 책자 발간에 관여한 바 없고 기념비의 석재를 정하기 위한 석재공장 답사에 남원, 진천, 고흥 등지를 함께 가면서 주로 차량운행을 담당했다”고 소명했다.

한편, 상섭(尙燮) 위원은 제출된 소명서에서 “본인이 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으며 추진위의 어떤 일에도 참석요청의 통보를 받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여, 이름을 도용당한 경우로 보이며, 동언(東彦) 위원은 소명서 제출도 소명발표에 출두도 하지 않았다.

장학·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소명서를 검토하고 소명발표를 들은 후,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단(壇)과 묘소(墓所)도 구분 못하는 우(愚)를 범한 일로 시조님의 신체가 두 군데로 양분돼 모셔져 있음을 인정하는 비웃음 받을 것이며, 기념비와 책자는 수정도 가능하다 하겠으나 미조치된 기록물이 일부 남아 있을 때 훗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음에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회의를 마쳤다.

전자대동보 수단신청 접수현황

상반기 대중중에서 접수한 전자대동보 수단 신청 각 파별(派別) 접수 현황 및 수단비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접수 인원 : 297명

2. 수단 접수비 : 18,293,000원

3. 배분

◎ 파중중(70%) : 12,805,100원

(사간공파 선공제 8,645,000 + 4,160,100)

◎ 대중중(30%) : 5,487,900원

순위	파 별	접수일	신청자	인원	접수비	배 분		비 고
						파종중(70%)	대종중(30%)	
01	사간공파	01/03	영 재	35	1,640,000	1,148,000	492,000	선공제
02		01/13	재 현	83	8,940,000	6,258,000	2,682,000	
03		01/25	홍 식	2	52,000	36,400	15,600	
04		02/15	득 철	5	164,000	114,800	49,200	
05		03/22	현 화	1	50,000	35,000	15,000	
06		03/22	동 일	1	14,000	9,800	4,200	
07		05/18	응 철	1	2,000	1,400	600	후 환급
08		06/17	현 무	4	130,000	91,000	39,000	
소 계				132	10,992,000	7,694,400	3,297,600	
09	정언공파	01/24	현 익	6	395,000	276,500	118,500	
10		05/23	준 식	1	30,000	21,000	9,000	
소 계				7	425,000	297,500	127,500	
11	한성윤공파	05/18	재 욱	3	143,000	100,100	42,900	
12	제정공파	05/20	희 철	1	8,000	5,600	2,400	참석
13		06/29	동 범	35	1,490,000	1,043,000	447,000	
소 계				36	1,498,000	1,048,600	449,400	
14	판사공파	05/12	업 순	20	994,000	695,800	298,200	
15	진사공파	04/29	동 운	2	40,000	28,000	12,000	신규 2
16		05/17	영 순	16	615,000	430,500	184,500	
17		05/23	현 길	6	213,000	149,100	63,900	
18		05/28	경 란	11	461,000	469,700	201,300	분할입금
		05/31	현 홍	5	210,000			
소 계				40	1,539,000	1,077,300	461,700	
19		05/11	현 우	25	1,075,000	752,500	322,500	
20	문희공파	05/27	영 철	8	430,000	301,000	129,000	
21		05/28	순 철	15	570,000	399,000	171,000	
22		05/29	홍 현	7	502,000	351,400	150,600	
23		05/31	동 선	4	125,000	87,500	37,500	
소 계				59	2,702,000	1,891,400	810,600	
총 계				297	18,293,000	12,805,100	5,487,900	

※ 수단 분배금은 각 파종중 계좌로 입금

파종중 · 화수회 소식

전서공 향사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2022년 4월24일(일요일) 12시에 신록의 봄 향기가 그득한 전서공 제단에서 종중 회장(東錫)은 전서공 휘호(諱 灝)公의 제단(祭壇)이 소재한 경기도 가평군 청



[종중회장 동석]

평면 무주동(빛고개)에서 회장 외 약 1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초헌관 동훈(東勳)(성남), 아헌관 현익(鉉益)(추화), 종헌관 동일(성남) 대축 동석 회장, 집사 동휘(성남) 관철(춘천)으로 분정하고 광순(光淳) 고문의 집례로 엄숙하게 향사를 봉행하였다.

전서공 종중에서는 올해부터 단소축문을 현대적으로 재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축문을 고유했다.

전서공파 시조 단소 축문(임인년) “오늘은 4월 24일 평산신씨 15세 전서공 춘향제 날입니다. 이곳 가평군 청평면 무주동에 모셔져있는 조고(祖考)정현대부 예조 전서공 부군과 조비(祖妣) 정부인 남양홍씨의 단소에서 祭를 종중회장 동석이 올립니다. 우리 후손들은 조상님의 크신 음덕과 거룩한 보우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감지덕지하고 감은(感恩)감읍(感泣)하며 감탄 망극한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삼가 정성을 다하여 제수(祭需)를 차리고 주찬(酒饌)으로 공경을 드리오니 흡향하옵소서 후손 동훈 고(告) 하나이다.”

향사 후에 제단 앞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업무 및 감사, 결산 수지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전 종원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종중 회장은 코로나로 3년간 많은 종원이 참제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많은 종원이 참석하길 희망하는 인사로 같음하고 총회 폐회를 선언하였다.

온수감공 파조 휘 기(淇) 향사봉행



[온수감공 휘 기(淇)의 묘소]



[종중회장 재식]

4월 14일(음 3월중정) 11시에 충남 서천군 비인면 율리사(충남 지방문화재 제303호)에서 종원 30여명이 모여 재식(載湜 34세) 종중회장이 간단한 인사를 한 후 향사를 봉행하였다.

율리사는 시조이신 장절공 신승겸 장군을 비롯하여 신현(申賢 13세), 신훈(申琿 14세), 신연(申演 대제학공 파조), 신기(申淇 온수감공 파조)와 온수감공파 23세 신철(申澈), 신오(申澳) 7위(位)를 배향한 사우로 1918년에 건립되었다. 이

사우가 비인지역에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고려 말 조선초기의 혼란기에 신용(申龍)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통덕랑 휘 신용(諱 申龍 16세)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두문동에 들어갔던 온수감공의 아들로 그 후 23세 휘 신철, 휘 신오의 후손들이 함께 옮겨와 살게 되면서 번창하게 되었다.

이날 분정은 초헌관 동일, 아헌관 동만, 종헌관 동우, 집례 한섭, 축 재식, 우집사 춘섭, 좌집사 광섭 宗이 각각 맡아 봉심(奉審)하였다.

향사 후 조상님을 추모하는 덕담을 하면서 음복 후 총무(두순 宗)의 안내를 받아 중식을 겸하여 종종 현안에 대한 토의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한 후 산회하였다.

문화공파 대사성공(大司成公) 향사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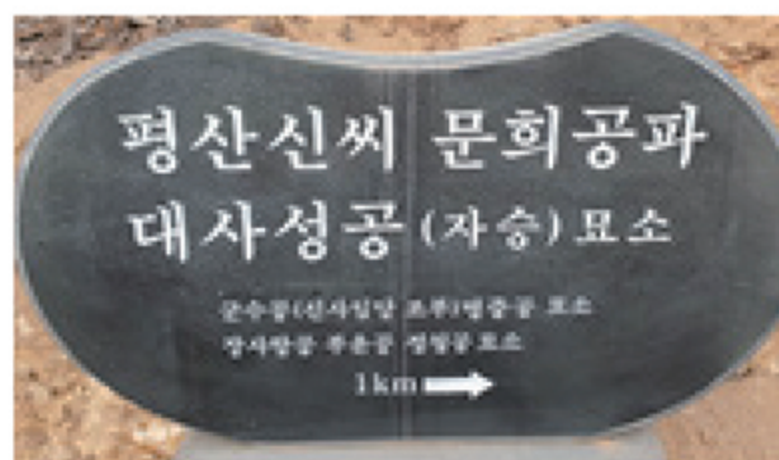


2021년 11월 6일 만추의 계절을 맞아 경기도 진위면 동천리 산11번지에 위치한 동호거사(東湖巨士)대사성공 휘 자승(諱 自繩, 16세손) 묘역에서 봉행했다.

공은 문화공 파조 휘 개(諱 槩)의 삼형제 중 차남으로 字 장언(長彦)이고 호 동호(號 東湖)이며 성균관의(유생의 교육, 훈련기관) 대사성(大司成)을 지내셨다.

이날 분정은 영현 회장의 집례로 초헌관 재균(처사공), 아헌관 기봉(장령공), 종헌관 효식(군수공), 독축 현도(장사랑공), 좌집사 현주, 우집사 윤식 등이 소임을 맡아 엄정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 후 영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사에 참석하신 종원에게 감사드리며 내년



에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모든 종원이 참석하여 제례를 봉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평택시 공원조성관계로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 대사성공 묘소 안내석을 새로 제작, 설치하였다.

제21회 신사임당 추모제 봉행



제21회 신사임당 추모제가 지난 5월17일 강릉 오죽헌 몽룡실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회장 조옥강)는 신사임당의 얼을 기리고자 매년 사임당의 기일을 맞아 남성중심 제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여성이 모든 것을 주도하여 추모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분정은 초헌관 이순우 도지사 부인, 아헌관 이현수 강릉부시장 부인, 종헌관 김진희 권성동 국회의원 부인을 비롯한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관계자들이 분임을 맡았다. 신사임당은 지난 1504년 10월 29일 강릉 북평촌(현 오죽헌)에서 고려개국공신인 시조님으로부터 18세손인 명화공과 생원 이사온공의 따님이신 용인이씨 사이에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조선 초기 화가인 안견의 화풍을 이어받아 산수, 포도, 풀벌레 등 그림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며, 유교경전



에 능통하고 글씨와 문방에도 능할 뿐 아니라 자수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여성 최초로 5만원권 화폐 도안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평산신씨 대중중에서는 매년 화환을 보내 추모하고 있다.

제430주기 팔천고훈위령제 거행



충주문화원(원장 손창일)은 5월28일(음 4월28일)



[충정공 신립 장군 영정]

430주기 팔천고혼위령제 행사를 충주시 후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축소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평산신씨 대종중과 문희공 종중, 충주시화수회에서 보낸 조화와 순천김씨 종중과 관계기관의 조화를 게시하고 종중단체 및 후손들과 기관단

체장, 시민들의 참배를 받았다.

팔천고혼위령제는 조선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상대로 충장공 신립(申弼·1546~1592) 장군과 김여물(金汝物·1548~1592) 부장 등 8000여 명에 이르는 의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배수진(背水陣)이라는 세계 전사에서 찾기 어려운 전 부대원의 순절이라는 옥쇄작전을 감행한 것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되살리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28일 탄금대 팔천고혼위령탑(충주시 칠금동 소재)에서 신립장군 후손과 김여물 장군 후손 등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거행되어 왔다.

신립(申弼)은 임진왜란 때 탄금대 전투에서 전사한 무신으로, 1567년(명종 22) 무과에 급제하였고, 1583년 온성부사로 부임해 북변에 침입해온 니탕개(尼湯介)를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하였다. 1591년 한성판윤에 임명되어 재직 중에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정(朝廷)은 이일(李鎰)을 순변사로 삼아 상주로 내려가 적을 막도록 하고,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아 이일의 군사를 응원하게 하였다.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패하여 돌아오자, 신립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자 왜군의 조총 사격에 대오가 흩어지고 신립의 작전은 어긋난 채 결국 8천여 조선군은 전멸하고 말았다. 신립은 전투 중 남한강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고 전해진다. 장군이 전투 때 뜨거워진 활시위를 식히기 위해 강 아래를 열두 번이나 오르내렸다고 해서 붙여진 열두대가 탄금대 북쪽에 자리한다. 탄금대에는 신립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장공 신립 장군 순절비」와 「신립장군순국지지(申弼將軍殉國之址)」비가 있으며, 임진왜란 때 전사한 8천여 명의 전사자를 위한 팔천고혼위령탑이 있다.

한편, 팔천고혼위령탑은 충주시가 지난 2003년 3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15m와 기반부 지름 18m 규모로 건립했으며, 탑신 상단부 혼 불은 산화한 영령을 추모하는 모습이고, 하단에 마련된 신립 장군과 4인의 군상은 최후를 맞아 굴하지 않은 호국충절을 상징한다.

종보 구독, 주소변경 : 02-776-6151, 6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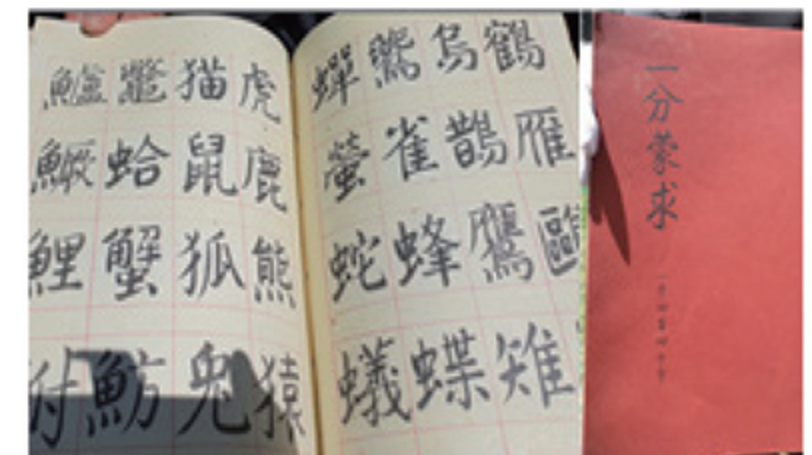
“해공 신익희 선생” 묘전에서 66주기 추모식 엄수



지난 5월 5일 11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신익희 선생 묘전에서 20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초목도 울었어라 임 가신던 그날이여! 강산에 비바람치고 백성은 목놓아 통곡했네」로 시작되는 해공 선생의 조가(弔歌)의 가사를 보면서 그의 유업을 기리는 제66주기 추모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해공기념사업회 신동호 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해공선생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여 선생의 약력보고, 이어 해공선생 기념사업회 회장(현승일)의 인사말에 이어 정계를 대표한 대한민국 헌정회 김일운 회장을 비롯해 각계를 대표한 인사들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어서 바이올린 연주 속에 해공선생 장손 및 유족에 이어 각계를 대표하여 9단체가 헌화 및 분향을 하고 평산신씨 대



[일본몽구 책자내용 표지]

종중 회장 철수(澈秀)외 직원과 함께한 종원들이 헌화, 분향하였다.

선생은 문희공 31세손으로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조선시대 판서를 지낸 휘 단(諱 檀)의 6男의 막내로 출생하여 상해 임시정부에서 내무, 외무차장 역임하시고 귀국 후 입법의원, 제헌 초대 2, 3대 의원 초대, 2대 국회의장, 1956년 민주당 대통령 입후보하여 5월 5일 유세를 위해 전주로 가던 중 기차안에서 심장마비로 서거하셨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사)해공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현승일)은 추모사 마지막 광고를 통해 “해공이 23세 때 장손 창현(昌鉉33세손)의 첫돌 선물로 지은 책 “일본몽구”(一分蒙求)를 소개하면서 이는 100여년만에 세상에 드러나 학계와 출판계는 물론이고 세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고 내용은 한글자도 중복됨이 없는 한자(漢子) 1440자로서 4언 절구 360구를 지어서 역

은 아동학습용 한자책이다. 중국의 주홍사가 지은 천자문과 형식이 비슷하나 천자문보다. 440자가 더 많고 천자문에 비해 쉬운 평이한 글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책의 주인인 창현(昌鉉) 家에서 책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100년 이상 비장해 오다가 이 책을 사)해공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에 기증함로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 낸 것이다.

이 책이 해공의 창작품일 것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해공의 창작품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은 단군이 나오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씌여 있음에 한국 사계(史界) 굴지의 학자들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99% 해공의 창작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기념사업회는 이사회를 열고 “일본몽구”를 간행하기로 하고 경비마련에 고심하던 중, 창현의 둘째 사위인 주)경품약품의 지춘호(池春昊) 회장께서 출판비 일체와 기념사업회에 5억 원을 추가로 희사하였다. 책은 8월에 출간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사)해공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

이날 향사에는 현대(鉉大) 용산단종중 회장을 비롯한 인현(仁鉉) 덕양서원중중 회장, 동언(東彦) 장군단 회장, 상남(相南) 광주전남 화수회장, 형식(亨湜) 광주전남 화수회 전 회장, 희철(喜澈) 창원시 화수회장, 윤균(崙均), 대철(大澈) 창원화수회 전 회장, 만석(萬石) 사천시화수회 전 회장, 명식(命植) 진주시 화수회장, 융성(隆成) 온정 노인회장을 포함한 본손 문중단체 임원진이 대거 참례하였다. 제례봉행이 끝난 후 유균(有均) 회장은 참례자를 위해 마련한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점식식사를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 화환을 보내주신 분

철수(澈秀) 대중중 회장	현문(鉉文) 표충재중중 회장
현대(鉉大) 용산단종중 회장	인현(仁鉉) 덕양서원중중 회장
동언(東彦) 장군단 회장	상수(相修) 부산경남 화수회장
명식(命植) 진주시 화수회장	원승규 원주원씨 윤곡대중회
백중기 전 남해대학 총장	김정만 용현면 농협조합장

경백사 춘향제례 봉행



[경백사 유균 회장]

4월14일 꽃향기 가득한 따뜻한 봄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종원 및 유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소재 경백사 경내에서 시조 장절공 춘향대제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하였다. 현권(鉉權) 총무의 내빈소개에 이어 유균(有均)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창궐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근에서 많은 종원과 유림분들께서 본 향사에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아울러 시조님 추모제례를 통하여 승조정신 함양과 종원 간 친화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마친 후, 제향집례의 창홀에 따라 전사청에 배향된 시조 장절공 및 불환제 신현, 목은 이색, 윤곡 원천석의 신위 전(前) 제사를 위해 초헌관 종길(鍾吉) 전 창원시 화수회장, 아헌관 김종태 사천향교 전 유도회장, 종헌관 김정만 용현면 농협조합장의 순서로 각기 헌작하고 정성의 예를 다하였다.

전라북도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정차 회장]

2022년 6월 25일(토) 오전 11시에 화수회관 3층 회의실(전주시 덕진구 소재)에서 임원 및 종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중 회장(철수)께서 보낸 축하화환이 회의장을 장식한 가운데 제54차 평산신씨 전라북도 화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정차(正次/정언33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2021년 제53차 정기총회를 실시하지 못한 채 서면결의로 대치(代置)하고 화수회 발전에 대한 임원 및 종원님들의 고견수렴의 기회가 없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던 바, 다행히 금년에는 각종 규제 완화(緩和)로 종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여건이 여의치 못해 정기총회 개최가 늦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원해 주신 임원 및 종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한 후에, 당면한 현안인 재개발 회관건물 처분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신규 건물취득을 위한 여러 물건을 물색(物色)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종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어 홍균 명예회장의 축사가 있는 뒤 전차회의록 낭독, 종무보고, 도석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규약개정, 2021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 2022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 기타 토의사항의 의안 심의를 마친 뒤,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상정의안 모두를 가결시켰다. 정차 회장은 맺음 인사말을 통해 금년에는 임원 연석회의를 통한 화수회 발전 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임을 말하고, 종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는 인사를 마치고 12:30에 산회하였다.

제49차 영천시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평산신씨 영천시화수회 회장 윤철(潤澈 사간공 34세)은 지난 7월 2일 수덕빌딩(영천시 완산동 소재) 연회장에서 이만희 국회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부인 이호성 여사, 윤승호 경북도 의원, 이영우 영천시 의원 표충재 종중 신현문 회장 신재봉 사무국장과 종원 100여명이 성원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 인사 후 각계 내빈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는 다음, 유공 종원 회장 윤철과 사무국장 영은(사간공 34세)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경과 및 감사보고 결산보고 후 수석부회장인 재경(판사공 36세) 宗을 신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회장은 굽들농원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화수회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헌신, 봉사하고 있다.

2부 행사로 박근도, 박현우, 손명숙, 정인순 등의 초청가수 공연 및 장기자랑과 푸짐한 경품을 마련한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신재경 신임회장은 “화수회 총회를 계기로 서로 지혜를 모아 화합하고 단결해 한층 더 발전하는 화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중규약 개정에 관하여

1.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 인류를 공격



[대중중 감사 권채]

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 우리 인류문명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평온한 일상은 질병 대란으로 무너지고 팬데믹으로 생존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이때 대중중은 2019년 이래 그동안 대중중 총회가 중단 되고 상임유사회는 대중중 총회 구성원의 결사항을 서면결의로 위임받아 최고의결기관인 상임유사회

(2022.3.29.)에서 대중중 규약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대중중의 사업계획(2022년도)은 재정적 확충사업을 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수원빌딩을 매수하고 금년에는 춘천회관건립계획을 추진하여 재정수입을 도모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시조님의 역사 문화적 가치 개발 및 영속적인 전승사업으로 시조님의 위상을 높이고 정립하는 대중중 혁신을 시작한다. 대중중 회장 및 임원들과 총무국장, 문화국장 등이 열심히 노력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대중중에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 종원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2. 대중중규약이 모순되고 용어나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편집.종규위원회 위원장(표균)이하 위원들은 열정적으로 종규개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중에 핵심적인 사항을 개정하자고 한 사항은 ①목적사항 개정은 시조 고려태사 장절공 휘 신송겸 장군님의 묘소수호 관리, 봉제사 봉행, 종원 간의 친목도모와 유적지 보존 관리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4.9.30.선고 93다27703 판결참조) 시대의 흐름에 따라 ②도유사를 회장으로, ③상임유사를 상임이사로, ④대의유사를 대의원으로, ⑤조선을 선조로, ⑥유적지 보존회를 유적지 종중으로, ⑦긴급을 요하는 회의 소집통지를 한 경우 사회관계 망 서비스 SNS 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서면, 구두, 휴대폰전화로 소집통지 할 수 있다.” ⑧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종원의 복지와 관련사항으로, ⑨임원의 임기는 원안 유지 ⑩예산안 및 결산 안을 예산안 및 결산서로, ⑪ 회장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공탁금을 선거기탁금으로, 선거기탁금은 대중중에 귀속한다,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총회구성원에게 서면결의를 상임유사가 위임받아 개정사항에 찬성하는 의결을 하고 이를 최종 서면으로 모두에게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 찬성 의결을 받아 대중중규약을 개정하여 2022. 5. 16.자로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대중중 대표자 도유사를 회장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286개 성씨와 본관 858개로 약1,200여개의 종중 중에서 약10여개 종중은 대표자를 도유사로 부르고 나머지는 대표자를 회장으로 부르고 있음을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도유사는 조선왕조시대 송유역불정책으로 유교사상 통치이념으로 발전한 도유사란 명칭은 향교, 서원, 종중, 각종 계모임에 관한 사무를 맡은 대표자를 유사 또는 도유사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대중중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유사를 회장으로 개정하여야 종중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 종중 대표자를 회장이라 하여야 적법 타당하고,

유적지 용산단 및 덕양서원은 1981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56호로, 표충재는 1974년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14호로, 1982. 3. 4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호로 다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유적지 보존회”로 변경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므로 명칭변경을 하여서는 안되고 무형문화재 보존회는 많이 있으나 시조님 유적지는 종종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중중 규약을 이번에 개정함은 종종은 권리 능력없는 사단법인으로 보아 법률행위 시 종종대표자를 회장으로 호칭하여 관계서류에 기재함으로서 관청에 제출한 서류가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므로 혁신하여 대중중 규약개정이 필요하여 긍정의 눈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대중중이 앞으로 영원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종원동정

제2작전사령관 신희현(申熙鉉) 대장 취임

신희현 제2작전사령관은 아버지 봉래(奉來) 어머니 김해 김길자(金海 金吉子) 여사 사이에 5남 1녀 중 3남으로 출생,



[5.27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직 신고 후 삼정검 수취 수여]

슬하에 윤철(允哲) 보혜(保慧) 남매가 있으며 아버지와 2자녀가 학군장교 가족이다. 사간공파 33세손으로 2022년 5월 25일 대장으로 진급하였고 제2작전사령관에 임명되었

다.충남 예산군 삼교읍 두리 출신으로 삼교초등학교(47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남대학교 회계학과(85학번)에 입학하여 1989년 졸업 및 학군사관 27기(육사 45기와 동기)로 임관하였다.

신희현 육군대장은 보병 제36사단장(2018년도), 제2신속대응사단장(2021년도) 제3군단장(중장)으로 제임 중, 2022년 5월 25일 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제2작전사령관으로 보직되어 관할구역 내에 있는(경상·전라·충청 지역의 6개 도와 5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향토 사단 및 직할 부대들을 예하에 두고, 작전 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평산신씨 대중중 회장 철수(澈秀)는 사령관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평



[신희현 육군 대장]

산신씨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치하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장절공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를 빛내달라고 하면서 어렵겠지만 기회가 되면 대중중을 방문해 주길 당부하고 장군의 장도(壯途)를 응원한다고 하였다.

6.1 지방선거 당선! 시장·군수, 광역시·도의원 취임을 축하합니다.

■ 기초단체장



경기도 성남시장
신 상 진
(문희공파 35세)



경기도 과천시장
신 계 용
(사간공파 36세)



경북 문경시장
신 현 국
(문희공파 33세)



강원도 홍천군수
신 영 재
(제정공파 35세)



전남 완도군수
신 우 철
(사간공파 34세)

■ 시,도의원



서울시 의원
신 동 원



부산시 의원
신 정 철



인천시 의원
신 영 희
(문희공파 35세)



충남 도의원
신 한 철
(사간공파 34세)



충남 도의원
신 영 호
(문희공파 38세)



경북 도의원
신 효 광
(판사공파 37세)



경남 도의원
신 종 철
(사간공파 34세)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 뷰티/헬스산업 대상 수상 봉철(奉澈) 34세손, (주)넥스트에라 회장



[2022년 6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헤럴드경제 주최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메디)뷰티/헬스산업 대상”에서 (주)넥스트에라(대표 申奉澈)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바이오(메디)뷰티·헬스산업 대

상’은 바이오 뷰티 헬스 산업 분야의 유망한 기업과 브랜드를 발굴해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6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주)넥스트에라는 RS합성니코틴으로 국내 특허를 받아 인체에 무해한 액상전자 담배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이 분야 혁신을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봉철 宗은 사간공파 34세손으로 1970년대 평산신씨 중 중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선친(先親) 현일(1999년 미국에서 작고) 선생의 넷째 아들이다. 현일(鉉一) 선생은 장군단(將軍壇)이 소재한 전남 곡성의 태안사(泰安寺)사찰 건물의 단청공사와 시조님 위패(位牌)가 모셔진 덕양서원의 단청, 파조(派祖) 사간공(思簡公)의 제실(祭室)창건 등 많은 중중사업을 자신의 사재를 털어 공헌하신 분이다.

이런 선친의 유업을 이어받아 현재 봉철 중(宗)은 2022년도 춘천 시조 장절공 춘향대제에서 중헌관으로, 2021년 경기도 연천에 소재한 사간공 향사 봉행 시 초헌관으로 분정되는 등 종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으며 중중 발전을 위해 뜻있는 분들과 함께 후손들의 숭조정신 함양과 시조님의 충의정신을 이어 갈 미래 후세대 지도자 리더십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합격한 현수(鉉守 33世孫, 제정공파 약목종중)



현수(鉉守)宗은 아버지 석균(釋均)과 어머니 도혜경(星州 都惠慶)의 3형제 중 장남으로 전 세계 공학도들의 최종 목표이자 메카로 불리는 MIT에 합격하여 본인은 물론 평산신씨를 빛나게 하였다. MIT는 명실상부 공대분야에서 세계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으

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넘어 종합대학의 성격으로 변모해 왔으며, 세계 대학랭킹(QS)에서는 2013년 이후 2021년까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제치고 9년 연속 세계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MIT에서 현수(鉉守)宗을 “학교 역사상 경쟁이 치열한 지원자 중 재능있고 유망한 학생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개인의 탁월함과 원칙적인 목표에 대한 귀하의 헌신적 자세가 다양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우리 학업환경에서 크게 성장,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라고 합격의 이유를 밝혔다.

현수(鉉守)宗의 할아버지인 태일(泰一)은 제정공파 약목종 중 종원으로 평산신씨로서의 자긍심을 1남2녀의 자식들과 3명의 손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래서인지 후손들이 하나같이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며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견스럽고 조상의 음덕이라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히며 장손자의 대학합격을 기뻐하고 있다.

[기획시리즈 연재]

삶의 뿌리. 아! 아버지 ~

우리의 선조들께서 살아오신 세거지와 집성촌이 개발로 사라져 가고 후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그나마 구전으로 전해지던 흔적들마저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 보고자 기획시리즈로 연재하려한다.

이를 통해 각 종원 간, 문중별 또는 종적, 횡적교류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각 문중의 종원들께서 동참해 주기를 소망한다.

제4편 이상공파 현감 석강공(縣監石崗公) ‘옥발골’이야기

上系 : 13世 군평(君平) → 14世 순(珣) → 15세 이상공 인기(貳相公 仁鎭) → 16세 효우(孝友) → 17세 숙서(叔胥) → 18세 석곤, *석강, 석령(石崑, *石崗, 石嶺)

공자(孔子)님 말씀에 나이 육십이이순(六十而耳順)이라 하였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 온 사람에게 육십이 되면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 나이 예순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세상의 이치는 커녕 아직도 세속에 묻혀 숨 막힐 듯 바쁜 삶의 와중에 아~ 아버지! 라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해 봤다. 너무 오랜만에 불러봐서 그런지 아버지라는 말이 친근함 보다는 낯설고 어색하다. 내 아버지는 시조(始祖)로부터 15세 파조 이상공(貳相公)의 18세 손(孫) 현천(鉉沔, 일명 鉉益)공 이시다. 가난한 종손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 일찍 서울로 이주한 종손 형님을 대신하여 평생을 조상의 봉제사와 선영을 지키며 6남매를 훌륭히 키우셨다.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렇듯 내 아버지도 평범한 농부이셨지만 공자님 말씀 오십에 지천명(知天命)하고 육십에 이순(耳順) 칠십에 종심(從心)이라는 가르침에 어긋남 없이 사셨던 분이다. 그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게 세세손손(世世孫孫) 500여년 대를 이어온 평산 신씨 이상공파 가문이 집성촌을 이뤄 오순도순 모

여 살던 충청도 예산에 ‘옥발골’이란 마을이 있다.

13세 군평(君平)의 다섯째 아드님 순(珣)은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저항하여 두문동 72현과 함께 가문의 충의정신을 지키셨고, 15세 고려 첨의부 찬성사 이상공(貳相公) 신인기(申仁鎰)는 새 왕조 조선으로부터 끈질긴 출사 회유에도 불구하고 낙향하여 절의를 지키셨다. 이상(貳相)은 3정승 다음의 정승이란 뜻으로 좌찬성 우찬성(중1품)의 벼슬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상공의 손자 17세 죽당공(竹堂公) 신숙서(申淑胥)에 이르러 조정에서 출사하였지만, 수양대군 일파의 계유정란과 세조의 어린 조카 왕위찬탈에 성삼문 등의 단종복위 운동(死六臣 事件)에 연루되어 충청도 면천으로 유배되었다. 죽당공 신숙서는 약관의 나이도 되기 전 불과 17세 때(1451년 문종1) 생원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박사에 이어 종5품 승문원 교리 등을 제수 받으며 앞날이 촉망되는 인재였지만 아쉽게도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며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으로 절의를 지키셨다. 충남 공주의 동학사 숙묘전(肅慕殿)에는 계유정란과 사육신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옥전리, 일명 '옥발골']

단종을 비롯한 왕족과 성삼문 등 사육신, 김시습 등 생육신의 위패와 함께 숙서(叔胥) 죽당공은 동무(東廬) 29열에 배향되어 있다.

죽당공은 유배에서 방면되었지만 세조의 조정출사 요청에도 단호히 거절하며 절



[이상공파 제실 '이상사']

개의 징표로 집 주변에 온통 대나무를 심고 대나무로 정자를 지어 이름을 자신의 호(號)와 같은 죽당(竹堂)이라 하였다. 당대의 문장가 서거정은 그의 문집 죽당기문(竹堂記文)에서 죽당공 신숙서를 대나무에 비유하여 곧은 성품과 절의 정신을 높게 찬양하였다.

공은 말년에 유배지 당진 면천에서 멀지 않은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로 이주하여 아들 삼형제 훈육과 면면히 흐르는 평산신씨 가문의 정신 효(孝)와 충(忠)을 계승 발전시키셨다. 이른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아무 일 없었다면 그야말로 정승이 되었을 천재적 재능을 가진 숙서 죽당공은 계유정란이란 엄청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살아남아 충남 예산에 500여년 이어진 명문 가문의 뿌리를 내렸으니 그가 곧 평산 신씨 예산 입향조이시다.

수양대군 세조의 명분 없는 왕위찬탈 쿠데타는 젊은 신진 관료 신숙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일이었고, 신숙점 장군의 후예답게 권세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포기하고 유배지에서 대나무 같은 절개로 일생을 사셨다. 어느 한 세대가 생사를 넘나드는 험난한 세상을 살며 가문의 정체성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중차대한 역사 인식일진대 죽당공께

서는 평산신씨 이상공파 계보를 이어준 은인이시다.

아쉽게도 공의 선친 효우(孝友), 조부이신 파조 이상공 인기(仁鎰), 증조부 14세 순(珣) 등 3대의 묘소가



[현감 석강공 종중 제실 '영모사']

모두 실전된 것을 보면 고려왕조의 멸망과 조선건국의 소용돌이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사셨을지 짐작할 수 있다. 후손들은 1986년에 이르러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절골 양지바른 언덕에 14~16세 3대조(代祖)의 설단(設壇)을 조성하고 2017년에는 재실 '이상사(貳相祠)'를 지어 매년 10월 10일(음) 향사(享祀)를 모시고 있다. 죽당공은 장남 석곤(石崑), 차남 석강(石崗), 삼남 석령(石嶺) 3형제를 두셨는데, 이상공 파보에 의하면 장남 석곤은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내시고 부친께서 처음 터를 일구고 사셨던 봉산면 대지리에서 자손이 번성하여 집성촌을 이루며 사셨고, 둘째 석강은 광양 현감(縣監)을 지내시고 인근 마을 옥전리(옥발골)에서 평산신씨 집성촌 마을로 뿌리를 내리셨다. 셋째 석령의 후손들은 전라도 장흥과 서산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멀리 장흥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둘째 석강 공은 평산신씨 집성촌 옥전리 마을의 입향조이신데 공께서 처음 이주한 시기는 대략 1460~1490년경(성종~연산)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조선 초기의 혼인 풍습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즉, 남자가 혼인하면 처가 쪽 집에 가서 사는 풍습에 따라 석강공 역시 당시 이 지역(옥전리=덕풍현 내야면 상안)의 토착 성씨이던 덕풍황씨 가문과 혼인하여 처가 동네였던 옥전리로 처음 들어오셨던 것 같다.

공께서 옥발골로 이주하여 터를 잡은 후 평산신씨 이상공파 석강 후손들은 내포(內浦)의 가야산 동남쪽 봉명산 자락 자지봉(紫芝峰, 일명 紫朱峰) 아래 산골 마을에서 500여 년 동안 아버지에 아버지... 또 그 아버지 그렇게 17세대(世代)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내 어릴적 고향 옥발골은 봄에는 앞산 뒷산 진달래 개나리 흐드러지고 모두가 일가 친척이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던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해마다 설 명절이면 어느 집이랄 것도 없이 이집 저집 들러 세배 드리고 크게 한 상 차려 주시는 명절 음식에 맑은 동동주 한잔 마시며 즐거워하던 그 시절이 그리다.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없지만 선대로부터 아버지가 물려준 고향 옥발골의 추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옥전리에 세거하는 평산신씨 석강 현감공 종중은 마을의 주봉 자주봉 언덕에 '영모사(永慕祠)'라는 제실을 지어 선조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10월15일(음) 후손들이 모여 제향(祭享)을 봉행하며 아울러 고향을 떠난 후손들이 선영을 찾아와 제(祭)를 올리며 송조(崇祖)정신 함양 및 효(孝)와 가문의 뿌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사 현찬(鉉瓚) 총무 일균(逸均) 宗이 봉사하고 있

다. 1970년대 말 이곳 집성촌 마을 옥밭골에서 태어나 자라며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 같은 죽친 12명이 어찌면 아름다운 우리 마을의 전통문화와 풍습이 살아질 수



[자주봉회, 곡성 용산단 답사]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는 결의로 자주봉회(紫朱峰會)라는 친목회를 결성하였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향 옥밭골을 추억하며 전국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때때로 만나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 또한 자주봉회는 수년 전부터 매년 전국의 선대 유적지를 순회 답사하여 조상의 역사문화를 배우고 조상의 얼을 계승하려 노력하고 있다.

글(제보) : 영순(英淳 이상공파 34세)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처럼 선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송조정신의 으뜸이라 생각하며...!

財産相續・限定承認・相續拋棄

(재산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그 실무상 운용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대종중 감사·군수공파 회장 권채 34세 [법무사]

(3) 변제방법은 ①원칙적으로 우선권있는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인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고(변제1034조1항단서) ②한정승인자 최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 하여야 한다(변제1034조1항 본문). ③제1019조3항 특별한정승인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와 같이 배당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변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로서 상속인이 알지 못한 자는 위의 순서와 방법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3) 한정승인을 한 자가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가. 한정승인을 한자가 민법 제103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그 최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변제하거나 또는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데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

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 승인자는 이 때문에 생긴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제1038조1항)

나. 민법 제1019조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 승인한 경우에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다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무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같다.(법제1038조1항 후문)

다. 한정승인을 한자의 부당변제로 인하여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 받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제1038조2항)

라. 민법 제1019조 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한 경우에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같다.(법제1038조2항 후문) 이 구상권에도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준용된다.(법제1038조3항)

4. 相續의 拋棄

가.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한다.(법제1041조)

상속포기는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단순하여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일부포기는 할 수 없다.

나. 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차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차차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

(2) 피상속인의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차 순위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와 피상속인의 처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때 위 손자 및 외손자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차 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을 상속분의 비율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법제1043조)

5.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6.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 확인방법

가.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참조)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및 채무 각종주식, 조세, 과태료 등 채납여부 등 확인 할 수 있다.

나. 정부24 홈페이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신청하여 채권, 채무, 국세, 지방세채납 등을 확인할 수 있다.(www.gov.kr 참조)

7. 結論

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 승인하는 것이고 상속인 자녀들 상속을 포기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주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즉 할머니가 남긴 빚 아빠가 상속포기하면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이 갚아야 할 공동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13다48852호 판결)

나. 민법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최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한정 승인은 한정승인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2월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 할 것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 공고기간 2월내 채권신고 할 것을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고 그 기간 내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지난 우리역사 500년 돌아보고 반성하자

가장 불행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1580년쯤 태어나서 1640년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10대에 임진왜란을, 40대에 정묘호란을, 50대에 병자호란을 맞았다. 기록에 남아있는 당시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애 류성룡은 징비록에 굶주림이 만연하고 역병까지



[대종종 고문/성균관 부회장 龍水]

겹쳐 대부분 사람이 죽고, 백명에 한명 꼴로 남았다. 부모자식과 부부가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고 임진왜란의 참상을 기록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다. 인조실록에 보면 후금군이 철수하면서 수만명을 잡아가서 노

예로 팔았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기는 조선이 망하기 직전인 19세기 후반 일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 들어와 나라 백성을 도륙(屠戮)(무참하게 마구죽임)했다. 일본군이 동학혁명 농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계곡과 산마루는 농민시체로 하얗게 덮였고 개천은 여러 날 동안 핏물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우리 민족의 수난사는 6.25전쟁을 비롯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이들 수난사에는 공통점이 하나있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내부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싸우다가 당했다. 왜란이 일어난 16세기에는 대항로가 잇달아 개척되면서 앞선 국가들이 낙후된 국가를 약탈해 부를 쌓던 시기이다. 누가 먼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다.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로 부터 조총을 비롯한 선진문물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전국시대의 치열한 내전을 겪으며 전투력을 키웠다 반면 당시 조선은 성리학에 폭빠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다.

대마도에서 조총을 전수받았지만 무시해 버렸다. 국내 정치는 사회와 당파싸움으로 정신이 없었다. 1589년 서인 정철 주도로 동인계열 반대파를 무려 1000여명이나 처단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조선은 3년 뒤에 왜란을 당했다. 전쟁이 끝나고도 우리 조상들은 달라질 것이 없었다.

국민이 설마하는 안보불감증도 문제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쳐 들어 왔을 때 오랑캐들이 형님나라에 조공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한다. 단 일주일 만에 한양이 무너진 이유다. 1636년 12월 청나라가 압록강을 건너 공격했을 때 비상봉화가 타 올랐지만 도원수 김자점은 이를 무시했다. 설마 이 추운겨울에 공격하겠는가? 그리하여 5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다.

1904년 러,일전쟁을 벌리려는 일본의 야욕에 대해 우리 군부 최고 책임자 이용익은 대한제국 중립을 선언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수난은 모두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 일어났다.

근자에 들어 중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 건국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입고 군대를 열병하는 것은 보기에다 섬뜩하다. 사드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 같다.

일본 역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와는 벌써 몇 년째 위안부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쩌다보니 우리는 중국과도 일본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미국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인데 미국 역시 예전같지 않다.

북핵문제를 계기로 일본과는 친밀해지는 반면 우리와는 소원(疏遠)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또 다시 우리가 아니라 남에게 의해 좌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일 정상 이 즉각 통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에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진 점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도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다가가 이념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드가 환경에 별

영향이 없음에도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반성없는 역사는 무늬만 바뀔 뿐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중중에서 선정한 2022년도 장학생들에게 2학기 장학금이 8월 20일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장학생은 재학증명서와 1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을 8월 10일까지 대중중으로 접수시키고, 장학금을 수령하면 학교에 등록하고 영수증 사본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미등록이나 성적 미달(전 성적보다 10% 이하)시에는 장학금이 중단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pyongsan 777@naver.com

찔레꽃 사랑 어머니

상큼하고 싱그러운
향기 뽐내며
불꽃처럼 터뜨리는
고매한 꽃무더기

어머님 사랑의 그리움
흘러가는 세월에 휘감겨
하얗게 익어가니
봄 뽕 우짖는 소리
흰 구름 한가로이
쉬었다 간다

하얗게 일렁이는
바다의 포말 같이
자연의 향기 드높으니
찔레꽃이 탐스럽게
웅성거리는 건
5월이 깊어가기
때문일까?



신용기

생 일

그 해 생일 날 엉뚱한 망상을
하다가
실없이 가고 싶은 곳을 짚어
보다가
첫 손가락 느닷없이 나침반
바늘 떨 듯 파르르
전자파에 이끌려 다다른

어디로 부터 비롯됐는지
어디 쯤에서 마무리 될 것인가가 궁금했던

평산신공경희(平山申公敬熙),
배유인인천이씨(配儒人仁川李氏)
천 년의 꿈 봉긋이 꾸고 계시는 그 곳

말 없음으로
일생의 물음과 참선의 깨달음

미궁으로 부터의
죽비소리 천지를 울렸으나

탄생의 울음인들
참선의 한 모서리일 뿐
침묵의 언어조차 틈입할 수 없는 인큐베이터
눈물 한 방울 병에 담을 수 없는



신 표균
(진사공파중중 회장)

山과 함께하는 詩

雲山 申 載 元

山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왔다.
우리 저녁되고 앞산을 바라보며
뒷산은 물이 흐르고
조상들과 쳐다보며 지내왔다

나라가 위험하게 짓밟힐 때는
적벽을 방패삼아 벌하였고
실록을 깊은 산중에 감추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산과 더불어 살아 왔기에
멋과 풍류 선비정신이 겨레의 속에 스며있다.
독재정신이 살아있고 불의가 판을 칠 때도
산은 늘 곁에 있었기에
민주정신이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옆에 부모같은 산이 있기에

'종원동정'란 이용 안내

대중중에서 발행하는 종보에 종원 동정 란을 통하여 시조 장절공 후손들의 사회 활동 상황을 접수하여 등재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인적사항 : 성명, 파, 세, 전화번호

방 법 :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내용
(수훈, 자격증 취득, 합격, 직위취임, 선행 등)을 대중중으로 보내면 됨.

보 낼 곳 : 평산신씨대중중

인사

▶ 사간공파 종중회장 선임



- 申東夏(사간공 35세손),
- 1948년 6월 30일 생
- (주)덕은무역대표
- 대구, 경북화수회장
- 사간공파종중 부회장

▶ 표충재 종중회장 선임



- 申東鮮(문희공 35세손)
- 1943년 7월 14일 생
- 1970년 월남참전(충무무공훈장 수훈)
- 육군 대위 전역
- 2000년 경찰공무원 경감 퇴직
- 2016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구광역시 지부장 4년 역임)
- 표충재종중 부도유사

2022년 8월 ~ 10월 행사 안내

- 8월 20일 이전 2학기 장학금 지급
- 9월 11일 덕양서원 추향사(음. 8월 중정)
- 9월 26일 모영재 향사(음. 9월 1일)
- 10월 2일 승의전 추향사(10월 첫 일요일)
- 10월 4일 시조 장절공 묘소 추향사 봉행(음 9월 9일)
- 10월 11일 용산단 향사(음 9월 중정일)
- 10월 30일 195호 발행 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보 194호와 함께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및 제규정" "장군단 사실관계"를 별책으로 동봉합니다.

바로잡습니다.

- ☐ 1페이지 우상단 6줄 서현(경희대 父 상희 → 성진)
- ☐ 8페이지 덕양서원 헌성금 주신 분 추가
· 회장(락현) 1,000,000원 · 경남 진주화수회장 100,000원
- ☐ 10페이지 제정공파 약목종중 정기총회 및 도유사 이,취임식 사진 정정



- ☐ 11페이지 2020년도 대종중 장학생 → 2022년도
- ☐ 12페이지 서현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 경희대 의예과
- ☐ 16페이지 개인 성금 좌 하단 2째줄 전복(3.28입금) → 현석(익산)
- ☐ 장흥군화수회 소종중 → 시군구화수회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 (4. 15 ~ 7. 5)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리며, 투명하고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성철(경기 고양 일산)	20,000	무철(강원 양구)	30,000
경철(전북 전주 덕진구)	30,000	현국(충북 음성)	20,000
동철(부산진구 개금)	100,000	범진(서울 성북구)	20,000
영균(강원 삼척)	20,000	정섭(충남 태안, 안면읍)	20,000
광휴(경북 영덕)	30,000	재설(경기 시흥)	30,000
동준(대구 동구)	20,000	승수(광주 용봉동)	20,000
용주(경기 성남 분당)	100,000	병영(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00
현목(경기 화성)	30,000	용구(서울 중랑구)	20,000
현우(서울 강남구 일원)	30,000	동욱(부산 부산진구)	20,000
희철(서울 강동구)	100,000	현상(서울 동작구 상도로)	20,000
현식(경기 의정부)	20,000	숙조(서울 관악구)	30,000
현수(경기 의왕시)	30,000	경섭(경북 봉화)	30,000
상길(대구 달서구)	20,000	창훈(부산 금정구)	50,000
동석(부산 동래구)	50,000	현무(미국 L.A)	20,000

소 종중

정언공파 교동종중	50,000	사간공파 해정공종중	50,000
제정공파 울산동상문중	50,000		

시·군 화수회

영주시화수회	100,000	진주시화수회	100,000
포천시화수회	50,000	영천시화수회	100,000

파종중, 시·도 화수회

밀직공파 종중	100,000	인천시화수회	100,000
---------	---------	--------	---------

총 계 : 1,640,000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종중·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농 협 301-0202-9520-11 (평산신씨 대종중)
전자대동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종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종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